

마을 안녕을 위해 뿌리를 노출한 은행나무



지정번호 부천-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1,043년
수고 11m
흉고둘레 5.1m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0-1
37° 28' 49.32" N
126° 47' 31.00" E

1980년대까지 나무높이 30m에 달하던 보호수(부천-1) 은행나무는 높이가 예전보다 2배 이상 낮아졌으며, 인가와 도로 옆의 공간에서 겨우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043년이다. 나무높이는 11m 정도로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이는 높게 올라간 나뭇가지가 고사하여 잘라냈기 때문이다. 줄기와 나뭇가지가 죽은 이유는 뿌리가 땅위로 드러나거나 주변이 블록으로 채워지는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생육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슴높이둘레 510cm, 밑동둘레는 6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 25m로 넓게 퍼졌던 것이 현재 너비 12m 정도로 좁아졌다. 원줄기 2m 높이에서 굵은 가지 4개가 위로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위쪽 가지는 고사가지가 발생함에 따라 모두 절단되어 있다. 1개의 가지는 부분적으로 말라 죽어 보호 처리를 한 뒤 받침대로 받쳐 놓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나무뿌리와 관련이 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뿌리가 심하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보호차원의 흙덮기를 하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흙덮기 때문에 마을에 질병과 화가 미치는 등의 불상사가 잇달아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뿌리의 일부가 노출할 정도로 새로 덮은 흙을 다시 파내었는데, 그 후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해졌다. 옛날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귀하게 여겨 불교 용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였고, 함부로 베면 재앙을 받는다는 속신을 믿었다. 이 은행나무 주위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 의자를 놓았으며, 등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벤치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소사본동에는 은행나무 이외에 보호수로 지정된 2그루의 나무가 있다. 나무나이 800년이 넘는 느티나무이다. 주민들은 이곳의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장수를 기원함과 동시에 그안에 살아 숨을 쉬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소사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2000년부터 매해 기원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의 화합, 안녕,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제이다.

